

우리시대 베스트셀러의 社會史 3

姜萬吉의 「分斷時代의 歷史認識」

金彦鎬

출판인·한길사 대표

한 史學者の 길을 바꾼 10월 유신

10월유신은 한국사학자 강만길로 하여금 학문적 자세 내지 노선에 하나의 전기가 된다. 역사학이란 무엇이며 역사학자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라는 원론적 물음을 그는 10월유신을 겪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유신은 강만길 뿐만 아니라 이땅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분명한 결단을 하게 했다. 권력의 폭압적 상황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거나 그것을 극복하는 연대적 저항운동에 동참하는 길이 지식인에게 주어졌다.

사학자 강만길은 10월유신에 배신당했다는 기분을 억제할 수 없었다. 7.4남북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도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자 박정희는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을 그의 권력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상공업사를 전공하고 있던 강만길은 이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전공에만 매달려 연구실에 앉아 있어야 할 것인가를 회의하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민족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에 어떤 국가가 있었다는 식의 역사지리학적 실증사학자들과 다를바가 없지 않은가. 그는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규명하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史論을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월유신이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커다란 반동적 사건이었다면,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국사의 대중화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사학자 강만길에게 10월유신은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현실지향, 현실극복의 역사학으로 가는 학문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것이다. 분단에 안주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분단지향의 권력, 그는 대중이 역사의식을 갖지 않고는 이 반역사적인 상황 및 존재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는 상아탑 속의 역사학이 아니라 대중 속의 역사학, 민족 속의 역사학을 추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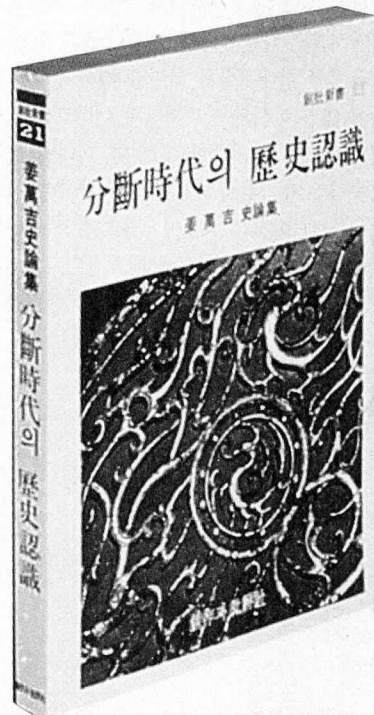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70년대는 민족적 자각이 적어도 지식인 사회에 크게 고양되는 시대이기도 했다. 강만길의 史論集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사학자 강만길의 저작으로서 뿐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상황에서 창출된, 아니 이 민족 분단시대가 창출한 가장 빛나는

最前線의 역사학이었다. 강만길 이전에 신채호·박은식 등의 사학사상 내지 역사정신을 계승하여 홍이섭·이기백·천관우·김용섭·길현모 등에 의해 식민지사학의 극복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족사학론이 이 땅의 학자·지식인들에게 하나의 큰 과제가 되기도 했지만,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역사학이 민족이 분단된 오늘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 시대의 한국사학은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실천적 명제를 던지는 ‘강만길사학’은 실로 하나의 학문적 ‘선언’이 아닐 수 없었다.

분단 극복·통일 지향의 역사인식

강만길이 「분단시대 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천관우의 사론집인 「한국사의 재발견」(일조각, 1974)에 대한 서평인 「실학론의 현재와 전망」(「창작과 비평」 1974년 겨울호)에서였다. 그는 이 글에서 “1945년 이후부터 민족통일이 이루어질 앞으로의 어느 시기까지를 사학사적 입장에서 ‘분단시대 사학’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78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펴내면서 권두논문으로 「분단시대 사학」에 대해 저간의 생각들을 종합·정리해 내놓은 것이 「분단시대 사학의 성격」인데, 이 글에서 저자는 분단시대 사학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분단시대를 사는 사학자들이 가야 할 길을 천명하고 있다.

“분단시대의 국사학이 식민사학론의 극복을 최대의 과제로 삼았던 사실은 일제시대의 실증사학이 문헌고증학적·역사지리학적 연구에 주로 탐닉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단의 방법론적 진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들이 처했던 역사의 현장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민족사회의 현실문제와 유리된 역사학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의 실증사학이 식민지치하에서의 민족적 절곡을 외면한 채 주로 사실 고증·지명고증에만 학문적 정열을 바쳤던 사실과 분단시대의 국사학이 분단체제 아래서의 민족적 고통에는 별 관심없이 주로 일제관학자의 학문적 죄악성을 폭로하고 시정하는



데만 열중한 사실이 뒷날 우리 사학사를 정리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어 분단시대 사학이 “분단시대의 정치현실·문화현실과 연결되면서 분단체제적 현실에 매몰”되어 분단체제를 “유지·연장하는데” 이바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역사의 틈속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역사학”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분단시대의 역사학의 궁극적인 과제는 “통일지향 민족국가의 수립에 공헌할 수 있는 史實의 연구개발”과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통일지향적 민족주의론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 ‘분단시대 사학’은 ‘반공주의 사학’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조건들이 엄존하는데 ‘반공주의 사학’이 과연 학문적인 용어일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創批와의 만남

‘강만길사학’ 또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저자 개인의 것이면서도 제간지 「창작과 비평」 및 이 잡지를 주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70년대 이후 이 땅의 지식인 운동과 더불어 큰 의미를 갖는다. 70년대 중·후반에 민족문화운동 및 민족출판운동의 선도적인 한 역할을 해낸 바 있는 ‘창비’와의 만남을 통해 강만길사학은 더욱

부각되고 분단시대의 역사이론으로서 공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66년 백낙청 등에 의해 창간된 제간지 「창작과 비평」은 70년 초반부터 민족적인 것을 더 강조하면서 현실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편집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민족주의적 지식인·학자·문학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우성(성균관대·한국사), 안병직(서울대·한국경제사), 정창렬(한양대·한국사), 이영희(연론인), 김윤수(미술평론가), 신경림(시인), 박현채(경제평론가) 등이 이 무렵을 전후해서 필자로 가담하여 문제작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다. 강만길이 「창작과 비평」에 등장한 것은 72년 여름호에 「이조후기 상업구조의 변화」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당초 강교수의 이 글은 다른 기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70년 초반부터 백기원을 중심으로 하여 백범사상연구소가 조직되어 민족학교 등을 여는 등 이 사회의 현실문제를 실천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부영·김도현·허현·최혜성 등이 구성원들이었고 그 뒤에는 장준하가 있었다. 이들은 우리 근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는 한 권의 책을 기획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강교수의 원고는 이 기획에 들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무렵 창비의 편집책임 맡고 있던 문학평론가 염무웅이 이 기획을 인수받아 창비에 하나씩 발표하게 되었다. 조동일의 「가면극과 민족의식의 성장」, 정석종의 「홍경래란」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강만길은 그 이후 창비를 통해 잇따라 주목할 만한 사론을 발표했다. 물론 창비측의 ‘요구’가 있었다. 「국정교과서의 문제점」(74년 여름호), 「유길준의 한반도 중립화론」(73년 겨울호), 「대한제국의 성격」(78년 여름호), 「한글창제의 역사적 의미」(77년 여름호), 「실학론의 현재와 전망」(74년 가을호)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시기에 「민족사학론의 반성」, 「국사학의 현재성 부재문제」, 「국사학의 주체성론 문제」, 「개항 100년의 반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 등을 발표했다. 편집자 염무웅에 의하면, 강교수는 쉽고 정확한 문장으로 독자 대중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필자였다.

강교수의 사론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

는 것도 창비의 생성·발전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창간호부터 14호까지 일조각에서 발행되던 창비는 15호부터 시인 신동문의 도움을 받아 신구문화사에서 발행되었고(신동문은 신구문화사의 편집고문이었다), 다시 74년부터는 하나의 잡지사·출판사로 독립되었다. 백낙청이 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했다 해서 74년 말에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당했고, 76년 2월에는 염무웅이 재임명에서 탈락되면서 '해직교수'가 되었다. 창비의 두 핵심멤버가 실직되면서 창비의 잡지·출판 작업은 자연 본격화될 수 있었다.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에 대한 시각들

1978년 8월 20일에 초판이 나온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의식있는 독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회과학도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학계로부터도 여러 갈래의 반응이 나왔다. 정창렬은 "현실대결의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최대의 특징"이라고 지적하면서 "분단체제의 해소·극복이란 과제를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정당하게 위치지움으로써 저자는 현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갖가지 통일론, 진실에 있어서는 통일을 저해하면서도 입으로만 통일을 부르짖는 허위에 찬 통일론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근거를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편으로는 저자가 '근대화주의'에 지나친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함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개항 100년의 역사가 실패와 공백과 분단으로 엮여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 100년사의 마무리는 역시 통일을 위한 방법과 이론을 세우는데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족의 진정한 재통일만이 진정한 근대화와 주권독립의 귀결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개항 100년사의 반성」).

이우성은 그의 「한국의 역사상」(창작과 비평사, 1982) 머리말에서 민족주체적 입장에서 서지 않는 객관성을 통렬히 비판, "주체성이 없는 객관성, 어떤 시대에도 그대로 통하는 객관성, 이것은 중성적 객관성이다. 민족의 통증과 무관한 것이다"고 규정하여 역사인식의 현재성·현실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현재성·현실성을 중시하는 강교수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서양사학자 양병우(서울대)에 의해 격렬하게 제시되었다. 「문학과 지성」 1980년 봄호에 「'통일지향 민족주의' 사학의 허실」에서 양병우는 "만일 그 연구나 서술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전락하고 역사가 학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살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기에 역사로써 실천적 목적에 이바지하려면 우선 그것이 학문적으로 빛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교수는 이어 "한마디로 역사 연구에서는 추구된 목적에 의한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도달된 결과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민족통일운동은 "역사학 본래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국사학의 과제일 수가 없다"고 단정했다. 양교수는 뿐만 아니라 강교수의 통일지향민족주의를 "공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일과 자유를 함께 바라기는커녕, 통일이나 자유나 하는 가혹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직과 한국 근·현대사의 저술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펴낸 이후 강교수는 사론적인 작업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사론에서 제기한 바를 한층 체계화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제2의 사론집인 「한국민족운동사론」(한길사, 1985년)과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세권의 책은 또한 그의 '해직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날로 이성을 잃어가는 유신체제의 말기적 상황과 현실극복의 역사인식은 계속 갈등관계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10.26에 의해 유신체제가 몰락했지만 그 연장선상에 서는 5.17에 의해 그는 해직교수가 되었다. 그러나 '해직'은 한 역사학자로 하여금 그의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시간적 여유는 오히려 본격적인 집필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근대민족주의의 전개과정」(1983),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1983), 「민족분단의 역사적 원인」(1985), 「독립운동과정의 민족국가건설론」(1982) 등 주목할 만한 논의를 담고 있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보다 한층 진전된 내용인 「민족운동사론」의 책 머리말에서 "어쩌면 역사적 소용돌이의 한 모퉁이에 휘말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에 집착했는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감회의 일단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해직시기에 「한국근대사」와 「한국현대사」라는 두권의 「통사」를 저술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5.17 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지식인 134인 선언' 등으로 그는 80년 7월에 해직이 되었고 84년 5월과 6월에 두 책이 나왔는데, 그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이 책의 저술 작업은 '역사교육'의 연장이었다. 20년 동안 근·현대사를 가르쳐오다가 강단을 떠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적 고독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책을 써서 책을 통해 강단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고, 81년 초부터 집필을 시작해 83년 말에 탈고했다. 「한국현대사」의 서문에서 저자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역사학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인 일반의 역사의식을 높이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책무감에 쫓기면서, 그리

고 타의로 자리를 잃은 교단생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열정을 쏟고 싶은 욕심에서 강의하는 자세로 쓰기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해직'은 그의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땅의 지식인들의 실천적 삶에 주어지는 상징적인 이름이었다. 76년에 다산 정약용의 학문정신 및 현실비판정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이우성·강만길·안병직·정창열·김태영(경희대·한국사)·이만열(숙대·한국사)·김진균(서울대·사회학)·정



姜萬吉 교수

윤형(홍익대·경제학)·임형택(성균관대·국문학) 등에 의해 구성된 다산연구회의 많은 회원들이 '해직교수'가 되었다는 사실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민족적 수난의 시대에 '해직교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땅의 현대지성사는 큰 공백으로 남아 있을 것이었다.

또 다른 역사이론의 문을 열어

강만길교수가 83년 12월 30일 이영희교수와 함께 잡혀가서 84년 2월 14일에 풀려난 이른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종교교 교과서 토론회사건도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에게 부과되는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사연의 위촉을 받아 종교교 교과서의 내용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초빙으로 강교수 등은 "북진통일론이 주장되던 시대의 역사교육으로는 이제 안된다. 중·고교 교육이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지의 강의를 한 것을 당국이 문제삼았던 것이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 무렵부터 통일문제에 관해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고 이 사건은 바로 그 와중에서 일어났다.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78년 출간 이후 현재까지 39,000부를 기록하고 있고, 85년 출간 이후 각각 48,000부와 46,000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근대사」와 「한국현

대사」(이 두 책은 교과서적인 것이라서 더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70년대 초·중반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이 시대 민족문화운동 내지 민족주의운동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들은 단독 존재가 아니라 분단시대를 인식·극복하려는 수다한 다른 책들과 집단적으로 공존하면서 일정한 자기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아울러, 「한권의 책」은 또다른 한권의 책을 존재하게 한다는 출판문화의 변증법적 발전이론

민족적 자각이 지식인 사회에

크게 고양되던 70년대에 출간된

강만길의 이 史論集은

개인의 저작으로서 뿐 아니라

민족분단시대가 창출한 가장 빛나는

最前線적인 역사학이었다.

이 시대의 한국사학은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실천적 명제를 던지는

'姜萬吉史學'은 실로 하나의

학문적 '선언'이 아닐 수 없었다.

을 보여준다.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젊은 사학도들의 「한국민중사」(풀빛, 1986년)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발행인 나병식을 구속시키고 재판까지 받게 하는 「한국민중사」는 그 내용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이 시대의 양심적인 학자·지식인들에 의해 그 존재가 적극 옹호되었고, 강교수는 「한국민중사」의 재판과정에서 "역사는 계속 새로 씌어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요컨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등이 식민지시대와 분단과정, 6.25라는 민족상잔을 체험한 세대의 역사서술이라면, 「한국민중사」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분단시대사에 '오염되지 않은' 세대의 역사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등은 식민지시대와 분단과 동족상잔을 전제로 하는 분단극복사관인 반면에, 「한국민중사」는 그러한 것을 당초부터 전제로 하지 않고 민족을 주제로 하는 민족통일사관이라는 데서 시대적인 성격을 달리한다. 우여곡절은 겪지만 민족사의 총체적 발전은 분명 진행되고 있다 할 것이다. 권력 또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斜視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강만길의 역사이론 또는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민족사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민족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하나의 계기이자 문을 여는 역할을 해냈다는 데에 '한권의 책'으로서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